

도교육청, 모로코에 '디지털 교육 노하우' 전파

교원 20명 초청 일주일여 연수 진행
'이러닝'·'로봇 활용 피지컬 컴퓨팅' 등
문태고교 AI교실 찾아 수업 참관도
2021년 파트너십...매년 PC 지원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모로코 교원들이 '디지털 교육 세계화 초청연수' 개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개발도상국인 모로코에 디지털 교육 노하우를 전수하며 글로벌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도내 일원에서 모로코 교원 20명을 초청해 디지털 교육 연수를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모로코와 디지털 교육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한 PC 100대 지원, 디지털 교수학습 모델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이번 연수 또한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전남의 디지털 교육 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이러닝 세계화의 이해 ▲전남 LEAD 교사단과 함께하는 핑퐁 로봇 활용 피지컬 컴퓨팅 ▲현지 특화 수업 설계 및 글로벌

피드백 등을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업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로코 교원들은 목포 문태고등학교 인공지능(AI) 교실을 방문해 AI 기반의 수업 현장을 참관했다.

AI 관련 과목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AI 지역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문태고는 교

육부가 지정한 AI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로 2023년부터 모로코 교원들이 매년 방문하고 있다.

이어 도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의 미래융합체험관과 모두공작소를 찾아 첨단 에듀테크 시설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경북공 한복 체험과 담양 소쇄원 방문 등 한국의 전통과 남도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문화탐방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모로코 방문단 대표 교사인 주헤일 에데같은 "전남의 앞선 교육 현장을 경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연수에서 배운 디지털 교수법을 모로코의 교실에 잘 적용해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길 글로벌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나라가 교육이라는 공통 분모로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

으로도 내실 있는 전남교육의 확산을 통해 글로벌 교육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월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KLIC)을 통해 모로코의 디지털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모로코 교육부로부터 감사 서한을 받았다.

／박선욱 기자

전남대, 'NABI 국가연구소' 구축 본격화

교육부·과기부 NRL2.0 1차 통과
초고령 사회 대응 정밀 의료 연구

전남대가 NABI 국가연구소 구축에 속도를 낸다.

11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소(NRL2.0) 사업 1차 평가를 통과하며 웰에이징 바이오인터페이스 분야 세계적 연구 거점 구축을 본격화 한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부설 이공계 연구소 육성을 위해 3년간 12개 대학을 선정하고 10년간 최대 1천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NABI 국가연구소는 고령화 시대 핵심 질환 대응을 위한 첨단 바이오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목표로, 전남대와 전남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공학·의학·바이오 분야와 기업, 글로벌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융합형 연구 플랫폼이다.

전남대는 이번 1차 평가 통과를 계기로 연구 공간, 전담 인력 배치, 공용장비 구축, 대학원 교

육 강화, 기술사업화 지원 등 대학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임상 수요 발굴부터 기술개발, 검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연구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기반 국가연구소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NABI 국가연구소는 지역에서 세계적 연구 성과와 산업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플랫폼"이라며 "국가연구소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생 관계회복 지원

내달까지 초·중·고 650명 대상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11일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2026 The 좋은 회복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교육적 중재를 통

해 학생 간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 회복을 도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대상은 학교장 자체 해결건이나 사안 처리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650명(26학급)이다.

청소년 상담가 등 49명으로 구성된 '관계회복

전문위원'은 다음 달 5일까지 학급당 3회에 걸쳐 갈등 중재 상담, 관계 회복 등을 돕는다.

학급 단위 집단 상담 외에도 학생 개인 심층 상담을 진행해 개별 맞춤형 관계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긴급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명숙 교육장은 "사안 처리 이후에도 갈등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연중 상시 지원 체계를 확립해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대-美 뱍티스트대, '파트너십' 맺었다

'실무급 상시 소통 채널' 활성화
학생 교류·공동 연수 등 협력기로

광주대학교가 미국 캘리포니아 뱍티스트 대학교(CBU)와 내실 중심의 글로벌 교류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11일 광주대에 따르면 최근 CBU 브라이언 데이비스(Bryan Davis) 국제협력처장과 환담을 갖고, 단순 우호 증진을 넘어 양 대학 구성원들에게 즉각적이고 체감 가능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내실 위주의 교류 프로그램' 진행에 뜻을 모았다.

〈사진〉

양 대학은 형식적인 서면 협약(MOU)보다는 실행력 있는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 뒤

시차와 행정적 절차를 극복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급 상시 소통 채널(Hot-line)'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학생 교류 및 공동 연수 등 협력 과제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환담 이후 브라이언 데이비스 처장은 호심기 넘도서관의 첨단 학습 인프라와 박물관에 담긴 광주대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며 우수한 교육 환경에 깊은 인상을 표했다.

김동진 총장은 "이번 CBU 국제협력처장의 방문은 '협약을 위한 협약'이 아닌, 양교 모두가 원하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무 핫라인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글로벌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각 시·군 선착순 모집★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